

8. 철도 운수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전동차 기술자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조○○는 27세 때인 1983년 6월 4일부터 지하철공사 차량분야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6월부터 간헐적으로 가래에 피가 묻어 나와 2005년 2월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조○○는 지하철 공사에 입사하여 3년 8개월간 차량부(현, 차량차) 소속으로 전동차의 제작 관리/감독 및 부품 시험/확인을 하였고, 파견도 나가 전동차의 시운전과 수리/수선 및 하자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후 3년 2개월간은 Z사무소에서 전동차를 직접 정비하였는데, 이 당시 정비한 부품 중 항상 분해/조립한 브레이크슈 및 라이닝이 석면 재질이었다(1989-1990년에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됨). K사무소에서도 2년간 정비작업을 하였는데, 2001년 6월 19일 K사무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된 전동차 관련 시설물 및 전동차 부품 등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가스켓, 아크슈트(차단기), 브레이크라이닝, 와샤애자(주저항기), 전자접촉기 등 전동차 부품 9개 시료에서 적게는 10-20%, 많게는 90% 이상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에 석면이 검출되었거나 의심되었던 부품 39종을 Y기술원에서 재분석한 결과 13종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2004년 10월까지 총 5,264개의 석면 함유 부품을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1990년 4월 14일부터는 차량사무소 현장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하였으며, 1998년 7월 1일부터 주로 관리 업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연구개발 업무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흡연력은 10 갑년이며 2002년도부터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4년 6월부터 간헐적으로 가래에 피가 묻어 나와 2005년 1월 3일 병원을 방문하여 1월 19일 촬영한 흉부컴퓨터사진에서 좌하엽의 폐암이 의심되어 2월 3일 입원하였다. 다음 날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상 좌하엽의 소세포 폐암으로 확인되었으나 뇌, 골수, 뼈 등에 전이된 소견은 없었다. 이에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받았다.

4. 결론: 근로자 조○○는,

- ①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 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21년 8개월 전부터 초기에 총 8년 10개월간 브레이크 슈 및 라이닝 등 석면이 최고 90% 이상 함유된 지하철 전동차 부품 정비 작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 조○○의 원발성 폐암은 과거 종사한 정비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